

#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의 태도

## 결혼의 본래적인 목적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좃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19:1-2)

예수님은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19:3)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 즉 유도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덫을 놓으려는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여 계속 함께 살기를 원치 않으면 그로 하여금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아내의 ‘수치되는 일’은 남편에게 아침을 지어주지 않았거나 달걀을 너무 오래 끓여 노른자위가 딱딱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라도 남편이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혼서류를 작성하면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는 할 수 없이 이혼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이혼하고 싶으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이 ‘수치되는 일’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당시 처녀가 아님이 밝혀진다는지 결혼서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수치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각기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대체로 아내의 ‘수치되는 일’에 대해 협의적이고 도덕적 관점에서 보았던 힐렐(Hillel)학과와 광의적이며 포괄적으로 다루는 샴마이(Shammai)학과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꼬투리를 잡기 위해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오”(19:4)

여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즉 창조 당시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질서를 바꾸어 보려는 경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19:5)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결혼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몸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로 인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스물세 개의 염색체가 각각의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새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내에게 ‘당신 아기니까 당신이 돌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한몸이 된다는 사실의 완전한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19:6)

그 당시 여자들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합치셨으니 헤어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19:7)

그들은 모두 모세가 준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지만 모세의 율법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도 이 모세의 율법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에 의하면 이혼은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은 모순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셨는데 어찌하여 네가 그럴 수 없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19:8)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모세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며 원하셨던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19:9)

모세는 그렇게 말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외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분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은 부모의 보살핌 속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전체의 붕괴와 질서의 몰락은 남편과 아내가 갈라짐으로써 오는 가족관계의 붕괴로부터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불화와 갈라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예외, 즉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간음의 경우에 한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고한 쪽은 재혼이 허락됩니다. 예수님은 매우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바로 음행이 이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19:11-12)

이 부분은 예수께서 고자인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해야 합니다.

###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19:13-15)

제자들은 아이들이 주님을 방해하는 줄로 알고 막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시며 손을 그들의 머리에 얹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한(KJV)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9:16)

예수님께 한 도덕주의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의 선물, 즉 영생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또는 금식과 봉사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도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됩니다. 따라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얻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KJV)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19:17)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선하지 않다’는 뜻이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사람의 의식을 일깨워,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한 참된 이유는 비록 네가 확실히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뭔가 내게 다른 것이 있음을 느끼고 있음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즉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선생님께서 찾아볼 수 있는

저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 생명을 얻으리이까?”라는 말은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영적 진리에 상당히 가까이 접근해 있구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이렇게 묻게 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19:18-19)

주의할 것은 모세의 십계명 중 처음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도덕주의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믿고 그런 일을 찾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그의 삶은 선한 일을 하는 데 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19:20)

여기에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도덕주의자요 어릴 때부터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자신의 생애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옳고 어긋남이 없는 일만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영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단지 선한 삶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19:21)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좃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이 말씀 외의 다른 부분을 일반적인 적용으로 보아서 안 됩니다. 21절의 말씀은 그 청년에게 하신 개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좃아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 예가 있는데, 재정적 재난과 또한 개인적 몰락으로 끝을 맺곤 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흥분했으며 주님께서 곧 오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가 그것을 베드로 앞에 내려놓았을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재산의 전부를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부부는 재산을 팔도록 강요받지도 않았고 판 돈을 가져오도록 요구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유

의사대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을 좇아 영생을 얻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을 좇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부딪히는 모든 장애 요소에 대해서는 주님이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의 경우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았던 요인은 그의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짓 신이 있다면 지금 즉시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참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19:22)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근심도 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19:23- 26)

이스라엘에는 예수 강탄 교회(Church of Nativity)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로 통하는 문 아래쪽에 작은 문을 바늘귀라고 부릅니다. 여러 도시들로 들어가는 문들 아래에는 항상 이 바늘귀라는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려면 짐을 모두 내리고 몇 명은 뒤에서 밀고 또 몇 명은 앞에서 끌어당겨야만 했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문을 의미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쓰고 노력하면 구원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전적으로 틀렸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쓰면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작은 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늘귀를 때 쓰는 바늘의 귀를 의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너는 노력해야 한다. 끙끙거리고 몸부림쳐라. 최선을 다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각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19:27)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19:28)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주위에 있는 스물네 보좌를 보았으며 그 위에는 스물네 장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스물네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열두 보좌는 열두 제자들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해석상의 문제로 몇 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19:29)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나 더 주시는 것뿐 아니라 영생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아내가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이 못마땅하게 여겨 갈라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은 헤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여러 배나 받게 되며 영생의 선물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19: 30)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즉 이방인들이 먼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가 되어 영원히 영광스러운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 분별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나의 본래의 기질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래 기질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옛 사람과 함께 죽었습니다. 묵은 기질을 더 이상 지니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